

민주, 국회의원 1 대 16 뚫고 대약진…텃밭서 ‘입지 역전’

<민주> <국민의당>

광주·전남 정치지형 지각변동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정치 지형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녹색돌풍’을 일으키며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18석 중 16석을 석권했지만, 이번 대선 패배로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역 국회의원이 즐비한 상황에서 30%대 지지를 얻는데 그쳐 향후 현역 의원들의 책임론 등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이 1석밖에 없었던 민주당은 이번 대선 승리로 인해 바다 민심을 중심으로 세 확장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선 결과 광주·전남지역민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60%대의 지지를 보낸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는 30%대의 지지를 보내는데 그쳤다. 광주·전남 민심은 1년 만에 다시 민주당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선거 운동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전남지역의 지지율이 국민의당에 비해 민주당이 높았던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패배하고 계파 패권주의에 매몰됐던 민주당에 강한 ‘회초리’를 들었던 광주·전남 민심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에게 ‘집권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1명 밖에 없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군 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선거를 치르듯 바다 민심을 훑은 것도 이번 대선 승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광주·전남지역 18석 중 16석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갖고 있음에도 선거에 패배함에 따라

지역민심 문재인 후보 전폭 지지

국정수행·공약실천 성적표 따라

내년 지방선거 다시 돌아설 수도

국민의당 현역의원 존재감 흔들

지지자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선거기간 중 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 선대위의 중책을 맡으며 지역구를 상당 기간 비워놓았고, 일부 중진 의원들도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현역 의원 존재감도 상당 부분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혼란한 국정을 어떻게 수습하고 운영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선 기간 중 호남에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실전 의지 여부도 향후 지역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년동안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대선 공약 실천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광주·전남 민심은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당 소속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대선 패배를 계기로 바다 민심을 다져 내년 지방선거에서 설욕을 다질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일당독점’ 구도가 아닌 치열한 양당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7일 광주송정역에서 마지막 광주 유세를 벌이고 있다. 연설을 마친 문 후보와 당직자들이 지지자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부품단지 탄력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조성도 가속도

당선자 공약 포함 광주·전남 사업

문재인 대통령 시대 개막에 따라 광주는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 전남은 ‘해양관광과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은 물론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미래 자동차 산업,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과 광양항 경쟁력 강화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가 19대 대선을 2주일 앞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광주·전남공약은 ▲광주·전남 상생공약 3대 약속 ▲광주 8대 약속 ▲전남 8대 약속 ▲영·호남 상생 약속 등이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은 5·18 민주화운동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양분할 수 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5·18 정신 훼손 시도에는 엄벌 조치하는 등 5·18 정신의 헌법적 가치 규범화 등이 그것이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광주공항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무안공항 저점공항 육성 등

시·도 16개·상생 3개 사업 약속

광주시, 전남도, 한국전력 등이 추진한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힘을 실어 광주 도시첨단산단과 연계해 에너지밸리를 조성한다.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연구개발특구 확대 등에 이어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세계최고의 에너지분야 연구중심대학인 한전공대(KEPCO)도 설립해 이를 뒷받침한다.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에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해 국가차원의 심혈관관리 연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광주의 미래상은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설정하며, 8가지를 약속했다.

광주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부품단지 조성, 아시아문화중

심도시 조성 특별법 시효 연장 등 사업 정상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제기관으로 설립, 민주·인권 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원도심 재생사업 본격 추진, 광주역에 도심형 하이테크 공원 조성 등 아시아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인공지능(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등이다.

전남은 ‘해양관광과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8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해경 제2정비창 유지 및 중소형 수리조선 산업 특화산단 조성, 무안공항 서남권 저점공항으로 육성, 서남해안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광양항 경쟁력 강화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 생물약 집적단지 조성 등이다.

영·호남 상생공약으로는 광주송정역~광주역~서대구~동대구를 연결하는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채희종기자 chae@/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새정부 출범 대응 분주

TF 등 꾸려 공약 실현·예산 반영·인사 추천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 발전 공약 실현, 2018년도 예산 반영, 지역 주요 인사 추천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 각 시·도가 새 정부 초기에 지역발전 공약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 광주와 전남의 주요 공약을 정부부처의 2018년 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대응 TF’를 구성·운영에 들어갔으며, 전남도는 김갑식 행정부지사, 우기종 정무부지사,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등을 주축으로 청와대, 정부부처와 직접 협의에 나설 준비를 갖췄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아 상황총괄반, 정부협력반, 공약실행준비반 등 총 3개의 반으로 구성된 ‘새 정부 출범 대응 TF’를 시 정책기획관실에 설치했다.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오는 9일부터 6월8일까지 1개월간 정부협력과 공약실행 준비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TF에

서는 우선 새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은 물론, 지역 인사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여기에 새 대통령이 5·18 37주년 기념식을 참석할 경우 대통령 기념사에 5·18 관련 공약이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조율에 나서는 역할도 맡게 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무안공항 활성화 등 주요 공약의 신속한 예산 반영 및 추진을 위해 문금주 기획조정실장이 전반적인 틀을 짜고 김갑식 행정부지사, 우기종 정무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주요 인사,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을 직접 공략할 계획이다. 각 실국별로 담당 정부부처를 정해 동향 파악을 이미 마쳤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국정과제에 전남도의 주요 공약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별로 전망 최고
-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전남 보성 반값아파트 (분양)

보성 역 1분!! 보성군청 5분!!

총 187세대

25평, 29평, 34평

보조금 3,000만 월 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경기도 여주시 반값아파트 (분양)

버스 정류장 5분! 가남초등학교 7분!!

2017년 12월 성남장호원간 고속도로 예정

24평 - 평단가 6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물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



■ 부안군 진서면 (숙박시설)
토 302평, 건 286평
월수익 1,000만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3억9천8백



■ 동구 금남로3가 (4층상가건물)
토 118평, 건 304평
금남로 471의 1분
충청로 중심 상업권
▶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4천



■ 북구 용봉동 (12층 중 6층 상가)
토 62평, 건 99평
용봉동 cgv, 굿모닝 터운
주차완비 / 월세 100만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3천

기타 상가(소액) 물건 추천

- 북구 신인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정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 광산구 쌍암동 (10층 중 6층 오피스텔)
토 1평, 건 8평 (실평수)
보 300만 월 30만
▶ 감정가 6천 → 최저가 2천7백
- 상무지구 오피스텔 (13층 중 11층)
토 2평, 건 1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중심가
보 500만 월 40만
▶ 감정가 8천6백 → 최저가 6천만
- 남구 주월동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23평)
남구청 1분, 4m 도로 접
▶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서구광천동 (주택)
토 51평, 건 53평
광천동 재개발 지역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경매 무료교육

■ 매주 월요일 10시
기초교육 / 입찰 방법 교육

▶경매 실전 전문반◀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입찰부터
매매임대,개발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